

제21회 월봉저작상에 이성무 교수

《조선양반사회연구》 저술로 수상 ... 4월 10일 시상식

월봉 한기약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춘녕)가 주관하는 제21회 '월봉저작상' 수상자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성무 교수(59)가 선정됐다. 언론인·교육자로 민족운동에 헌신한 한기약 선생(1898-1941)의 유지를 받들고자 제정된 이 상의 올해 수상자 이성무 교수는 조선 중·후기 사림 주도의 사회사를 탐구한 《조선양반사회 연구》를 저술, 국학진흥에 독보적인 실적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0일 오후 4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치러진다.



제21회 월봉저작상을 수상한 이성무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새 집행부 구성

나춘호 신임 회장을 맡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 임원진은 부회장에 백석기(웅진출판) 박길부(예하) 이준중(성안당)씨, 상무이사에 백좌현(잡음) 최낙준(학림) 김봉모(대학당) 이정일(일신사) 최선호(세계사) 강경중(뿌리와 날개) 김병준(지경사) 이부남(다다미미디어)씨로 진용을 갖췄다.

제4회 작은 도서관 전국대회

작은도서관 전국협의회(회장 정정식)가 주최하는 제4회 작은도서관 전국대회가 오는 4월9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공도서관의 시책이 못미치는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도서관 관계자, 민간단체, 출판사 대표 등이 참가해 우수도서관 표창,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도서 10만권 기증운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게 된다. (0345-401-6458)

제10기 저작권 문화학교 개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가 주관하는 제10기 저작권문화학교가 2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4월 2일 개강했다. 오는 6월 25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동 소강의실에서 매주 두차례씩 강의가 진행되는 이번 저작권문화학교는 총 5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각종 저작권 관련 법규와 관리, 구제방법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596-8404)

한·중 문화교류 중국 도서전

(주)영광도서와 동북조선민족 교육출판사가 공동 주최한 '한·중 문화교류 중국도서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5일까지 부산 영광도서 전시관에서 열렸다. '96 문학의 해를 기념해 오랜 세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문화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주역》《장자연구》《중국전사》《삼국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저서 1천여종이 수입 전시되었다.

'96 운평만화대상 공모

금성출판사(회장 김낙준)가 출연한 운평문화재단은 예술만화와 한국적 만화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96 운평만화대상을 공모한다. 60쪽 내외의 중편 극화, 20쪽 내외의 단편 극화, 그리고 4컷 미만의 카툰(5점 이

상)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10월 31일 마감이며, 대상 1편에 1천5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713-4155)

〈현대문학〉 창간 41주년 기념행사

월간 〈현대문학〉 창간 41주년 기념행사와 제 41회 현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문학사 대표 김성식씨와 수상자들인 김초혜, 양귀자, 오생근씨를 비롯한 3백여명의 문학·출판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소설문학대계 100권'의 출판기념회.

'한국소설문학대계' 출판기념회

국내 근현대 소설문학을 100권의 전집으로 정리한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 22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작품이 수록된 최일남 이문구 송기숙 한승원 현기영 박태순씨 등 소설가들 비롯, 전집을 감수한 김윤식 박완서

씨, 편집위원을 맡았던 문학평론가 유보선 서영채 권성우씨와 두산동아의 양성모 대표이사 등 2백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소설문학대계'는 신소설작가 이인직에서부터 신예작가 김소진까지 1백66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기영 한설야 박태원 등 월북 및 남북작가들까지 포함한 최초의 전집이다.

냉정한 일본 남자가 쓴
발상 위의 한일 전쟁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 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 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술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6,000원